

2022

09

통권 469호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전국 어디에서나
가정법률 관련 화상상담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세요
www.lawhome.or.kr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원도 옥계 한국여성수련원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이랑 행복캠프'가 진행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여름 비혼모가족워크숍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이번 캠프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비혼모 36가정, 63명과 자원봉사자 등 90여 명이 참여하여 보람된 시간을 보냈다. (관련 내용 20면)



지난 8월 23일 상담소에서는 재충전과 업무 역량을 향상을 위한 직원재교육의 하나로 가정을 주제로 한 영화 감상 시간을 가졌다. (관련 기사 33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나의 청렴 우리의 청렴 모두의 청렴



- 4 · 이달의 메시지
- 6 · 특집 ❶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사례 연구
- 15 · 특집 ❷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화상상담 통계 분석
- 20 · 교육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캠프
- 28 · 가정폭력상담실
- 30 · 어떻게 할까요
- 32 · 좋은 책
 참 관찮은 죽음
- 33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 36 · 소송구조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신선생님댁 군자란〉



국가와 사회는 모든 가족, 가족구성원에게 최후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족 살해 후 자살’에 대하여 (2)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달라진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명절의 의미를 짚어보고 명절의 변화된 양상, 새로운 전환으로의 모색 등을 이야기하는 것도 새삼스러운 시절을 우리 국민은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는 급변하지만 다시 명절이 돌아오고 우리는 또 ‘가족’을 이야기 합니다.

과거에도 없지는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마음 아프고 괴로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슬프고 마음 아픈 현실을 직시할 때가 가장 올바른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닐는지요. 형태와 양상은 변화해도 ‘가족’은 여전히 한 개인의 삶의 출발점이며 나아가 사회를 이루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8월의 메시지에 이어 우리 사회의 가족 살해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가족 살해 후 자살’과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구분해서 면밀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존속살해 보다 형량도 낮고 심지어 ‘오죽하면 그랬을까’하는 온정적인 태도조차 보이는 경우가 있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의 경우에 대해서는 울산지방법원이 지난 2020년 5월 내린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9세인 자녀를 살해한 후

본인도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입니다.

“동반자살이라는 워딩에 숨겨진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온정주의적 시각을 걷어 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살해된 아이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 동반자살은 가해 부모의 언어다. 아이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는 피살이다. 법의 언어로 말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살인이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개인에게 책임을 온전히 묻기 어려운 정신질환자 범죄의 경우에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음에도, 유독 부모라는 사정이 관대한 처벌의 이유로 거론되는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러한 ‘가족 살해’의 이면에서 급속한 경제발전, 산업화에 따른 문화지체 현상이 여전히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농경사회에 기반한 대가족의 문화와 윤리는 이미 해체된 지 오래인데 그 흔적은 21세기에든 여전히 우리 가정과 가족 구성원 사이에 미풍양속으로 포장되어 남아 있고 그것이 바로 가족 간 갈등과 마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앞에 가족이 하나 되어 이겨 나가 보자는 것은 환상이 되었고, 시대에 맞는 가족 윤리가 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경제 지상주의, 황금만능의 사회는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때 가장 먼저 가정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그 끝에 ‘가족 살해’가 있습니다. 이는 또한 가부장적 잔재와 가정 폭력의 결합으로 여성, 노부모, 자녀 등 상대적으로 가정 내 취약한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해 그들을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기보다 부모나 가부장의 소유로 여겨서 생사조차 부모, 가부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그릇된 사고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언급한 판결문의 내용에서 “살해된 아이의 진술”이라는 문장이 주는 말의 무게를 깊이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게의 연장선에서 장애아를 둔 부모

의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는 말 그리고 중증 질환에 시달리는 배우자 혹은 부모를 보살피다가 함께 죽음에 이르는 가족의 경우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당연히 나누어졌어야 할 공적 영역의 돌봄을 사적 영역으로 밀어붙이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 해당 부서가 좀더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살피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이야말로 바로 가족과 가족구성원 관련 업무를 총괄적이고 중심적으로 다루는 가족전문부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하여 이 부서에서 ‘가족’을 중심에 둔 우리의 현실과 그 배경을 깊이 있게 돌아보려는 태도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인 제안과 개개인의 의식 전환을 위한 모색과 노력이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돌봄’이 절실한 순간, 무너져가는 가정 이외에 사회나 공동체 어느 곳에도 기댈 곳 없다는 절망감이 이들을 비극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의 진정한 관심이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치유를 위한 이해와 지원에 대해서도 폭넓은 관심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가족과 가족구성원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체화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앞장서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존엄, 가정의 중요함, 올바른 가정과 가족구성원의 삶 이러한 것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합의, 총체적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없고, 가정이 없다면 사회가 유지되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주인이라고 느낄 때 비로소 사회와 국가가 진정으로 건강한 사회,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사례에 나타난 친족 및 배우자부양의 현황과 시사점

I. 개요

가족법상 부양제도는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및 부부간의 부양과 친족사이의 부양 등으로 나뉜다.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및 부부간의 부양은 흔히 제1차적 부양의무라고 하여 부부관계·친자관계의 현실적 공동생활에 입각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부양의무자는 자기의 생활수준을 낮추어서라도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¹⁾ 한편 친족 사이의 일반적인 부양관계에서는 제2차적 부양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며, 부양의무자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을 부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한다.²⁾

부부간의 부양에 관해서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친족 간 부양은 민법 제974조 내지 제979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이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이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과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1)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제17판, 법문사(2020), 592면.

2) 김주수·김상용, 앞의 책, 593면.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을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이란 성년 자녀와 부모 간 그리고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장인 장모, 계친자 등의 관계를 가리킨다.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를 제외한 친족 사이에는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 배우자의 직계혈족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제974조 제1호에 따른 부양의무는 인정 될 수 없고, 다만 (전)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은 경우 제974조 제3호에 의한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³⁾

그리고 부양을 받을 자는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청구가 가능하고(제975조), 부양은 주로 금전 등 경제적인 급부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부양에 관한 상담은 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부부간 부양 그리고 노부모에 대한 성년 자녀의 부양에 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본소의 상담통계에서는 미성년 자녀 양육비 관련 상담을 ‘양육비’ 항목으로 별도로 분류하여 집계·분석하고 있고, 이에 관한 소송구조 사건 분석 자료도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양육비)’는 제외하고 배우자부양과 직

계혈족을 비롯한 친족간의 부양에 관하여 상담사례들을 중심으로 현황과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면접상담⁴⁾ 중 부양에 관한 상담은 2011년 79건, 2012년 116건, 2013년 134건, 2014년 145건, 2015년 158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여 2016년에는 183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7년에는 127건으로 떨어졌고, 2018년 100건, 2019년 119건, 2020년 69건, 2021년 52건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배우자부양의 경우에는 대부분 부부간 경제갈등이나 생활무능력 등을 이유로 한 이혼 혹은 부부갈등 상담 항목으로 분류되므로 위 건수들은 주로 친족간 부양에 관한 상담이다. 부양과 관련한 상담의 감소는 사적 부양보다는 공공 부양 확대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정한 친족관계에 기초하여 생기는 가족법상 의무인 “부양”은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 간의 유대관계의 약화와 개인화 경향 등으로 가족 내에서 해결을 구하기 보다는 국가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전에는 내담자가 자녀인 경우에는 노부모 부양을 회피하는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부양의무를 나눌 수 있는지, 가출이나 이혼 등으로 자신을 양육하지 않았던 부 또는 모에 대해서 자신이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지 또 내담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부양을 외면하는 자녀에 대한 부양 청구를 하겠다는 등의 주로 사적 부양에 관한 상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위와 같은 사례들은 줄어들고 있으며,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다는 상담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2021년도 부양 관련 상담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부양금]

[1] 부모와 성년의 자녀· 그 배우자 사이에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 부부 일방의 부모 등 그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 직계혈족이 사망하고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4)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은 상담방법에 따라 면접, 전화, 인터넷, 출장, 서신 상담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2021년의 경우 총 65,539건(소송구조 포함)의 상담 중 면접상담은 19,023건(소송구조 포함)이었다.

II. 친족 간 부양관련 상담사례

1.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을 청구하는 경우

1) 남 79세

사업실패 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0만원 집에 거주중이며 노령연금 30만 원과 지인들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 지방에 사는 아들과 딸에게 월 100만 원씩 부양료를 청구하고자 한다.

2) 남성 76세

8년 전 이혼하였고 아들 둘(37세, 35세)이 있는데 이혼 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아들들은 내게 알리지도 않고 결혼하였다. 나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빚을 많이 져서 퇴직하고 어렵게 살고 있다. 아들들을 만나고 싶고 도움도 받고 싶다.

3) 여성 88세

아들이 사망한 남편의 주요 재산 중 대부분을 상속했는데 이후 아들은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다. 아들을 상대로 부양료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월 40만 원의 적은 액수가 인정되었고 과거 부양료도 인정되지 않았다.

4) 여성 56세

이혼 후 혼자 힘으로 딸을 양육했는데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 경찰은 딸이 지방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딸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원한다.

5) 남성 69세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아내와 같이 살 때는 생활비를 주었으나 이혼하자 생활비를 안준다. 나는 3천만 원 임차보증금이 전 재산이다.

6) 여성 70세

자녀가 두 명 있는데 모두 연락이 단절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국가의 지원을 받고 싶은데 자녀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자녀들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싶다.

2. 가족과 단절했던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을 청구하는 경우

1) 남성 34세

15년 전 가정폭력으로 부모가 이혼하였고 아버지는 고향으로 내려간 후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 최근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며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고모는 지난 10년간의 아버지에 대한 부양료를 청구하겠다고 한다. 나는 아버지의 과거 부양료를 책임지고 싶지 않다.

2) 남성 49세

아버지가 도박과 알코올 중독 등으로 가족들을 괴롭혔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 형제들을 상대로 부양료청구를 했다.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주고 싶지 않다.

3) 남성 67세

오래전 이혼하고 아이들은 전처와 살았다. 아이들이 잘 자라서 대기업 근무 중이다. 내가 몸이 아파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기초수급비 28만 원과 노령연금 30만 원, 딸이 주는 15만 원 등으로 어렵게 산다. 아들에게 부양료로 20만 원만 지원해달라고 했으나 전화도 받지 않아 부양료 청구를 하고자 한다.

3. 부양을 조건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 남성 90세

아들 내외와 살고 있는데 며느리는 1년 전부터 친정에서 살고 있다. 아들은 처가와 집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나 혼자 밥을 해 먹고 있는데 이제는 가지고 있던 돈이 떨어져서 반찬 살 돈도 없다. 아들은 돈을 주지 않는다. 아들에게 2억 1천만 원을 증여한 적이 있는데 이를 반환받고 싶다.

2) 여성 55세

십여 년 전 어머니를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어머니가 오빠에게 전 재산을 증여했다. 그러나 오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언니들도 무관심하여 내가 십 년째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오빠와 언니들로부터 어머니의 부양료를 받고 싶다.

4.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을 청구하는 경우

- 여성 39세

나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 부모에게 부양을 청구하고 싶다.

5. 이혼한 배우자에게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을 청구하는 경우

- 여성 57세

오래전 이혼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32세 자녀와 5년 전부터 같이 살고 있다. 아이 아버지는 월 50만 원씩을 보내오고 있으나 자녀의 질환으로 생활비와 치료비가 부족하기에 부양료를 더 받고 싶다.

6. 부양료판결 이후 부양료의 지급이 불이행되는 경우

1) 남성 60세

딸이 자폐 장애인이다. 전처가 나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하여 월 소득이 40만원 이상인 경우에 월 4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그러나 소득이 없고 돈도 없어서 지급을 못하였는데 이행명령 신청이 제기되었다.

2) 남성 70세

2020년에 부양료 판결을 받았는데 딸 셋 중 한 명만 매월 보내오고 있다. 교사인 딸의 월급을 압류하고 싶다.

3) 남성 72세

과거에 내가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서 때렸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나와 연락을 끊고 산다. 부양료 청구를 해 월 10만 원씩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

4) 여성 70세

전남편의 가정폭력으로 2012년에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장애가 있는 성년 딸에 대한 부양료로 상대방이 월 20만 원씩 지급하도록 조정되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은행 예금에 대한 압류신청을 원한다.

7. 재혼 가정(계부모자간)의 부양의 문제

1) 여성 80세

남편의 전처소생 자녀들을 모두 친자식처럼 키웠는데 남편이 10년 전 암 진단을 받자 아들들이 막말을 하고 집을 내놓으라는 등의 협박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남편과 의논해 혼인 공동재산인 집을 협의이혼을 하고 내 명의로 변경하였다. 지적장애가 있는 전처소생 자녀를 내가 돌보고 있는데 두 아들들은 남편이 사망해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여성 40세

남편의 전혼 자녀가 중학생인데 사건 사고가 많아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친조부모도 손자가 사고를 많이 친다고 더 이상 양육을 못하겠다고 우리 집에 데려왔으나 내가 다시 돌려보냈다. 남편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지만 자녀에 대해 관심이 없어 내가 양육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치는 전혼 자녀를 감당하고 싶지 않고, 부양 문제가 계속 나오면 이혼을 고려할 예정이다.

3) 남성 40세

아버지가 오래 전 재혼하였고 최근 돌아가시자 계모를 부양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나는 계모를 부양하고 싶지 않다.

4) 여성 74세

재혼인데 남편 사망 후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전처 자녀가 단독상속 했다. 전처 자녀는 매월 생활비를 50만 원 정도 보내오고 있는데, 전처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계속 받고 싶다.

8. 친족 간 부양의무 순위의 문제

1) 여성 63세

남편이 2년 전 사망하였고 시누이는 미국에 거주 중이다. 시어머니가 2시간 거리에 사시는데 시누이가 어머니의 생활비를 내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더 이상 시어머니(조모)의 부양에 관여시키고 싶지 않다.

2) 여성 37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와 같이 살았다. 내가 혼인을 하면서 할머니와 따로 살게 되었는데 삼촌들은 나에게 할머니를 계속 모시라고 한다. 임차보증금도 할머니께 드리고 자주 찾아볼 생각이지만 삼촌들이 할머니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문제인 것 같다. 이제는 삼촌들이 할머니를 모시게 하고 싶다.

9. 자녀들 사이에 부양료, 부양 방법 등을 정하는 문제

1) 여성 62세

내가 94세 노모를 모시고 살다가 요양원으로 모셨다. 10년 전에 큰오빠가 형제들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하여 내가 모시고 오빠들이 월 40만 원 씩 내기로 하였으나 둘째 오빠는 20만 원씩만 냈다. 최근 어머니 병원비 등이 너무 많이 들어 부양료 증액을 원한다.

2) 여성 54세

2006년부터 친정과 연락을 끊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연락이 되어 형제들 간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있었고 약간의 상속재산을 받았다. 셋째 남동생이 어머니를 보살피었는데 어머니를 청구인으로 하여 과거 부양료 3천만 원과 장래 부양료 월 17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했다. 나는 우울증으로 퇴사를 하고 어렵게 살고 있다.

3) 여성 54세

20여 년 전 부모님이 아파트를 남동생에게 증여하였다.

나는 이혼 후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와 함께 살아왔는데 남동생은 생활비를 한 번도 보내오지 않았다. 2년 전부터는 아예 연락도 받지 않는다. 부모님의 연금이 100여만 원이고 다른 동생이 월 10만 원 정도 보내오는데 남동생에게 부양료를 청구하고 싶다.

4) 여성 61세

약간 거동이 불편한 정도인 91세의 어머니를 다른 형제들이 요양원에 강제 입소 시켰다. 나는 생활비나 간병비를 바라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싶을 뿐인데 다른 형제들은 막내인 내가 모시는 것이 자신들 체면을 구기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5) 여성 55세

치매 초기 상태인 아버지를 큰오빠가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서 아버지와 다른 자녀들과의 만남을 차단시키고 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집으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자유롭게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

III. 부부 간 부양관련 상담사례⁵⁾

1. 부부간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1) 여 40세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아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였다. 이혼을 원하지 않고 부양료를 받기 원한다.

2) 여성 51세

남편이 하던 사업이 부도나자 1년 전 가출하였다. 연락이 되지 않고 생활비며 월세, 양육비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아 생활이 매우 어렵다. 남편이 계약자인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임차인 명의만이라도 나로 변경하고 싶다.

5) 상담소의 상담통계 분류에서 배우자부양의 경우 대부분 이혼(사실혼해소 포함) 혹은 부부갈등 상담에서 6호 사유의 경제갈등 혹은 생활무능력 항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배우자부양의 상담사례들은 주로 경제갈등, 생활 무능력을 이유로 한 이혼 혹은 부부갈등 면접상담사례에서 추출하였다.

3) 여성 41세

남편이 3년 전 가출하였다.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아 전세금, 아르바이트, 친정의 도움 등으로 충당하였는데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일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이혼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고 싶다.

4) 여성 55세

외도로 10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따로 살고 있다. 그동안 생활비는 보내왔는데 최근 코로나 때문인지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

5) 여성 72세

남편이 개인택시 운전을 하는데 수입을 속이고 비자금을 만든 사실을 내가 알게 되어 다투게 되자 나를 구타하고 집을 나가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고 이혼을 요구한다.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생활비 지원과 남편의 연금을 분할하여 받고 싶다.

6) 여성 47세

남편이 6개월 전 가출하여 자녀 2명 중 한 명의 양육비만 송금하고 있다. 남편이 연락을 차단하고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

7) 여성 52세

남편은 도배일을 하는데 생활비를 주지 않아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최근 내가 몸이 아파 일을 못해 수입이 없는데도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 생계유지가 어려워 이혼을 고민 중이다.

8) 여성 55세

남편이 9년 전 집을 나갔다. 내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데, 남편이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보내준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 구청을 방문하여 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하였더니, 남편의 월소득이 500만 원이 넘는다고 하였다. 남편과 함께 생활할 때도 남편은 자기를 위해서만 월급을 사용하고 생활비는 잘 주지 않았다. 이혼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9) 여성 80세

나는 재산이 없다. 남편은 오래전 가출했고, 나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남편은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

10) 여성 63세

재혼한지 7년 되었는데 남편은 생활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다. 나는 가사일 뿐만 아니라 농사일도 열심히 했는데 남편은 자기의 재산인 논밭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모욕을 주고 이혼하면 1,500만 원 정도만 주겠다고 한다.

11) 여성 70세

2012년에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하여 월 2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2021.1.1.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원한다.

12) 여성 51세

남편이 11년 전 집을 나갔으나 가끔 집에 들어와서 생활하였고 집안 대소사 등에도 참여해왔다. 그런데 4년 전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생활이 어렵다. 밀린 부양료를 받고 싶다.

2. 공공 부조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장기별거 등으로 사실상 부양을 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부부간 부양과 관련하여서는 재판상 이혼 원인을 규정하는 민법 제840조의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중 장기별거와 관련한 상담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840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부 중 일방이 부부 공동생활체를 유지하지 않을 의사를 갖고 배우자로서의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며 상대방을 내쫓거나 두고 나가버리는 것 혹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든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 등이 될 것이다. 한편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장기별거의 경우는 별거의 시초는 합의나 쌍방 책임 혹은 일방의 책임에 돌릴 사유로 시작되었다가 오랜 기간이 지나는 동안 당사자 간

에 유·무책을 따지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경우들이 해당될 것이다.

본 상담소의 2021년 면접상담에서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혹은 ‘장기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 상담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이혼을 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는 초담만 73건이었다.⁶⁾ 재담 등을 포함하면 그 건수가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혹은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이혼을 해야 한다고 상담한 사람들 73명 중 남성은 34명, 여성은 39명이었다. 이들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남성은 80대 5명, 70대 9명, 60대 14명, 50대 5명, 40대 1명 등이었고, 여성은 70대 5명, 60대 20명, 50대 7명, 40대 5명, 30대 2명 등이었다. 60대 이상이 53명으로 72.6%에 달해 노년 빈곤 현실의 단면을 볼 수 있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여성 45세

남편이 7년 전 가출하여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임대아파트를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다. 그러나 남편이 있다는 이유로 후에 취소가 되어 이혼소송을 원한다.

2) 여성 49세

남편이 13년 전 가출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 어렵다고 한다.

3) 여성 55세

남편이 19년 전 가출하였다. 모자가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는데 이혼이 되지 않아 임대주택 재계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4) 여성 67세

남편이 24년 전 가출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국가의 지원을 받고 싶다.

5) 여성 63세

북한이탈주민으로 11년 전 중국인과 결혼했으나 상대방이 입국하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을 하려는데 배우자가 있어 어렵다고 한다.

6) 여성 68세

남편이 33년 전 외국에 간 뒤 연락이 두절 되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니 주민센터에서 이혼소송 접수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한다.

7) 여성 40세

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지 11년 되었다.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다가 주거복지신청을 하려고 하니 이혼이 되어야 한다고 안내 받았다.

8) 여성 53세

잡은 가출을 하던 남편이 연락 두절 된 지 2년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한부모가정인데, 임대주택 신청을 하려면 이혼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다.

9) 남성 70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수십 년 전 중국여성과 혼인신고를 했으나 아내가 입국하지 못했다. 임대주택 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내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한다. 이혼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10) 남성 84세

40년 전 집을 나와 현재 쪽방에 거주 중인데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을 원한다.

11) 남성 74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신청 당시에는 아내와의 장기간 연락두절을 이유로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최근 임대주택 신청을 하려고 하니 아내와 이혼이 안 되어 있어 배우자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6) 73건 중 장기별거인 경우가 49건, 장기별거와 악의의 유기가 중첩된 경우가 20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 경우가 4건 등으로 장기별거인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12) 64세 남성

18년 전 태국여성과 혼인신고를 했으나 아내가 입국을 하지 않았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이혼이 되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한다.

13) 남성 68세

20년 전 아내와 자녀들이 미국으로 간 뒤 연락이 끊겼다. 주거사다리지원사업 대상자로 임대주택 신청은 가능하나 아내의 동의를 받거나 이혼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한다.

14) 남성 67세

26년 전 중국 여성과 결혼하였고 아내가 입국하지 못했다. 임대아파트 거주 중인데 재계약을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 한다고 한다.

15) 남성 73세

26년 전 아내가 가출하였고 나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그런데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데 아내의 임대차계약(전세)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

16) 여성 60세

어머니와 함께 임대주택에 거주했는데 어머니가 사망하셨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지위를 상속 받으려고 하니 나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남편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 임대주택입주에 관한 심사 전에 이혼을 원한다.

17) 남성 70세

아내와의 불화로 30년 전 가출하여 전국을 떠돌다가 현재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 임대주택 신청을 하려면 이혼을 해야 한다고 안내받아 이혼소송서류를 준비 중인데 입증 방법으로 증인진술서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나는 친인척, 친구들과 교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어서 증인진술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IV. 부양관련 상담사례의 시사점

1. 가족 간 연대의식의 약화와 개인화 경향으로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현저히 약화 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자녀는 여유가 있는 때에만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지만, 여유가 있음에도 부양의무를 기피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과 부모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많이 볼 수 있었으며,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했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편 부양료는 매월 정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금전 급부 이외의 부양은 당사자 간에 협의나 조정이 된 경우에 가능한데, 단절된 자녀를 만나고 싶거나 일부 자녀에 의해 만남이 차단된 부모를 면접교섭하고 싶다는 사례들도 여러 건 있었다.

2. 부모 부양 문제로 자녀들 간에 갈등과 다툼이 촉발되는 사례들은 여전히 많았다. 이러한 사례들 중에는 생전 증여와 상속, 후견 등의 문제들과 자녀사이에도 경제적 논리로만 해결하려는 의식의 변화까지 겹쳐서 부양 문제로만 접근하기는 어려운 경우들이 적지 않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직계혈족 등이 일정 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고 하나, 20~40년 이상의 장기별거 혹은 외국에서 한 번도 입국하지 않은 경우 등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구청 등에서 이혼소송 접수증을 요구하는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신청과 재계약 등의 경우에도 장기간 별거하는 배우자라도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배우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보니 장기별거시에는 보다 간편하게 일률적으로 이혼소송 접수증을 안내한다. 이것은 국가의 지원과 부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의 의사와는 별도로 이혼을 강요하는 결과를 빚게 되는 한편 복지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혼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정보를 확산시킴으로써 이혼가정 혹은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 프레임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법률혼을 중심으로 한 생계급여나 주거복지 제도는 사실혼 관계인 사람들이 수급자 자격 유지를 위해 혼인신고를 기피하거나 동거 사실을 감추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체계는 부모와의 사이가 극도로 안 좋거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그리고 연락은 어쩌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도움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

4. 며느리가 (전)시부모를 부양해야하는가에 관한 상담은 종전에 비해 줄었으나 여전히 있고, 반면 사위와 장인 장모 관계에서의 부양에 관한 상담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남편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한 부계 중심의 부양의식이 아직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실질적 양육이나 장애가 있는 성년 자녀에 대한 돌봄, 노부모 돌봄 등 금전적 급부를 제외한 부양은 딸, 어머니, 아내, 며느리 등 여성들에게 그 부담이 집중되어 있었고 이것은 재혼가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5. 본 상담소의 부양 관련 면접 상담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가 2016년을 정점으로 2017년 이후로는 감소 추세에 있다. 이것은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가족 간 경제적 문제에 관한 갈등이 심화되는 한편 국가의 사회복지체계가 자리를 잡게 됨에 따라 공공 부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부양의무를 하지 않는 자녀, 부모, 배우자를 상대로 법정에서 다투는 것보다는 국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이 늘었음을 볼 수 있어 부양에 관한 의식 변화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6. 상담사례에 나타난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하여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이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혹은 경제적 자력이 없는 노년 여성들이었다. 이들의 배우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도 있으나 가출, 이혼강요, 경제권 독점, 무책임한 행동 등을 통해 혼인 의무를 거부하거나 배우자를 통제하려는 사례들이 많았다. 이와 같이 경제적 자력이 없거나 근로를 통한 수입 창출이 어려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긴급생활비지원 등이 확충될 필요 있다. 또한 경제력을 가진 배우자 일방(주로 남편)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배우자에 대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경우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배우자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혼인 중 재산분할이 인정 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7. 대법원 판례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부양료 청구는 인정하고 있으나 부부 사이에서는 과거 부양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⁷⁾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혼인의 성립과 더불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부부 사이에서도 과거 부양료 청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⁸⁾

8. 민법상 부양제도는 공공 부양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던 민법 제정 당시의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한 사적부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혈연을 중심으로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현실의 변화하는 가족의식과는 괴리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기타 친족간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양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전근대적인 조항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부양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녀 양육에 책임이 있는 비혼모의 자녀의 부(父)에게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양육 중인 비혼모가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비혼모의 부양청구권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7)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부양료에대한재항고] [공2008하,974]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에 있어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의 가부(소극):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8) 김주수·김상용, 앞의 책, 133면 참조.;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빈곤한 생활을 감수하였거나, 빚을 얻어 생활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방에 대해서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함.

특집 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화상상담 통계 분석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화상상담 한 달

(2022.7.15.~2022.8.14.)

7월 15일 화상상담 시작하여
한 달 동안 총 111건 상담 진행

일반 면접상담에 비해
여성 비율 더 높고
30대, 40대 등 젊은층 많아
거리상, 시간상 진행하기 수월해 남녀 모두
회사원 비율 높아

이혼, 친권/양육권, 부부갈등·양육비·면접교섭권
순으로 상담 많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2022년 7월 15일부터 화상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내담자들의 비대면 상담에 대한 수요가 많고 거리상 본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이들에 대한 상담과 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인식 하에 줌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화상 면접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내담자들은 컴퓨터나 휴대폰 등 개인 휴대기기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30분 단위로 상담 예약을 받고 있으며 상담소에 속해 있

는 상담위원과 변호사가 2개의 회선에서 순번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상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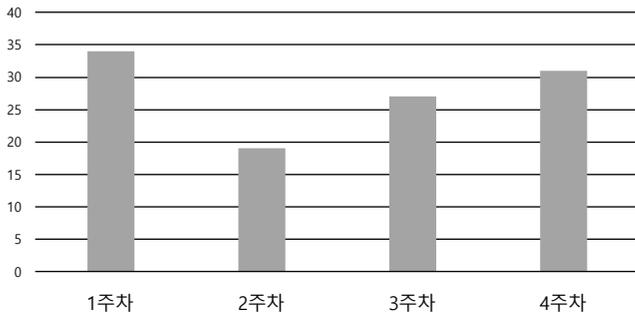
1. 상담건수

2022년 7월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약 4주간 본 상담소는 총 111건의 화상상담을 진행하였다.

시작 첫 날인 7월 15일(금)에는 상담건수가 8건이었고, 다음 1주차에는 26건, 2주차에는 19건, 3주차에는 27건, 4주차에는 31건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 날과 첫 주에는 그동안 화상상담 진행을 원했던 내담자들이 몰려 상대적으로 건수가 많았고, 2주차에는 다소 감소하였다가 3주차부터는 안정기에 접어들며 서서히 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날 짜	총건수
1주차	7/15~7/22	34
2주차	7/25~7/29	19
3주차	8/1~8/5	27
4주차	8/8~8/12	31
합 계		111

주차별 상담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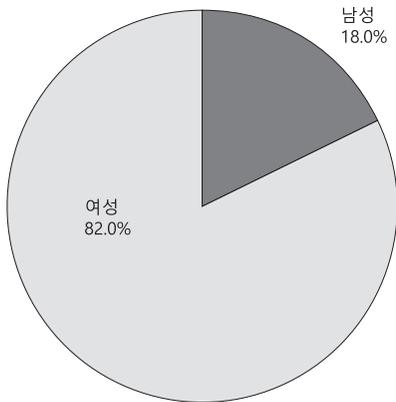


2. 내담자 특성별

1) 남녀별

여성이 남성보다 4.6배 많아

성별	명수	백분율
여성	91명	(82.0%)
남성	20명	(18.0%)
합계	111명	(100.0%)



내담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이 91명(82.0%), 남성이 20명(18.0%)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6배 많았다.

본 상담소에서 2021년도에 진행된 일반 면접상담의 내담자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 54.4%, 남성 45.6%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는데 화상상담의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더욱 높았다.

2) 연령별

여성은 40대, 30대, 20대·50대 순으로

남성은 40대, 30대, 60대, 50대 순으로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38.7%(43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30대(34.2%, 38명), 50대(9.9%, 11명), 20대(9.0%, 10명), 60대(7.2%, 8명), 70대(0.9%, 1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은 40대가 36.3%(33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대(35.2%, 32명), 20대·50대(각 11.0%, 각 10명), 60대(5.5%, 5명), 70대(1.1%, 1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40대가 50.0%(1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대(30.0%, 6명), 60대(15.0%, 3명), 50대(5.0%, 1명) 순으로 나타나 여성과 차이를 보였다.

한편 본 상담소에서 2021년도에 진행된 일반 면접상담의 내담자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60대 이상(여성 26.7%, 남성 34.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여성은 40대(25.6%), 50대(25.3%), 30대(16.3%), 남성은 50대(28.0%), 40대(22.2%), 30대(10.4%)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일반 면접상담에서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화상상담에서는 40대가 가장 많고 다음은

연령	여성		남성		합계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10대	-	-	-	-	-	-
20대	10	11.0	-	-	10	9.0
30대	32	35.2	6	30.0	38	34.2
40대	33	36.3	10	50.0	43	38.7
50대	10	11.0	1	5.0	11	9.9
60대	5	5.5	3	15.0	8	7.2
70대	1	1.1	-	-	1	0.9
합계	91	100	20	100	111	100

30대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젊은층의 참여율이 높았는데 이는 화상상담의 기반이 되는 줌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이 고령층보다는 젊은층에서 더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직업별

여성은 회사원, 주부, 기타, 전문직 순으로

남성은 회사원, 자영업·종교인·무직 순으로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회사원이 27.9%(31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주부(20.7%, 23명), 기타(10.8%, 12명), 자영업(7.2%, 8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은 회사원이 26.4%(24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주부(25.3%, 23명), 기타

(12.1%, 11명), 전문직(7.7%, 7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회사원이 35.0%(7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영업·종교인·무직(각 10.0%, 각 2명) 순으로 나타나 여성과 차이를 보였다.

한편 본 상담소에서 2021년도에 진행된 일반 면접상담의 내담자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은 주부가 2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회사원(8.5%), 무직(6.4%), 단순노무(6.0%) 순으로, 남성은 무직이 1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회사원(17.4%), 자영업(11.5%), 단순노무(7.6%)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일반 면접상담에서는 여성은 주부, 남성은 무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화상상담에서는 남녀 모두 회사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화상상담의 경우 직접 본 상담소에

연령	성별	여 성		남 성		합 계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주부		23	25.3	-	-	23	20.7
회사원		24	26.4	7	35.0	31	27.9
단순노무		3	3.3	1	5.0	4	3.6
자영업		6	6.6	2	10.0	8	7.2
공무원		1	1.1	-	-	1	0.9
경찰		-	-	-	-	-	-
군인		-	-	-	-	-	-
교육직		5	5.5	1	5.0	6	5.4
전문직		7	7.7	-	-	7	6.3
운전		-	-	1	5.0	1	0.9
세일즈		-	-	1	5.0	1	0.9
학생		-	-	-	-	-	-
간호사		1	1.1	-	-	1	0.9
약사		-	-	-	-	-	-
의사		-	-	-	-	-	-
한의사		-	-	-	-	-	-
농수산임목		-	-	-	-	-	-
예술인		1	1.1	-	-	1	0.9
종교인		-	-	2	10.0	2	1.8
법조인		-	-	-	-	-	-
기술직		-	-	1	5.0	1	0.9
무직		5	5.5	2	10.0	7	6.3
기타		11	12.1	1	5.0	12	10.8
미상		4	4.4	1	5.0	5	4.5
합 계		91	100	20	100	111	100

방문하는 것보다 거리상 접근하기 더 용이해 짧은 시간으로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 평소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직장인들도 이용하기 수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월수입별

남녀 모두 월수입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아

다음으로

여성은 101~200만원, 201~300만원,
31~100만원 순으로

남성은 301~500만원, 101~200만원,
501만원 이상 순으로

월수입을 살펴보면 없는 경우가 41.4%(46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101~200만원 이하(21.6%, 24명), 201~300만원 이하(11.7%, 13명), 301~500만원 이하(9.9%, 11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은 없는 경우가 44.0%(4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01~200만원 이하(22.0%, 20명), 201~300만원 이하(12.1%, 11명), 31~100만원 이하(8.8%, 8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없는 경우가 30.0%(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1~500만원 이하(25.0%, 5명), 101~200만원 이하(20.0%, 4명), 501만원 이상(15.0%, 3명) 순으로 나타났다.

3. 사건내용별

이혼, 친권/양육권, 부부갈등·양육비·면접교섭권
순으로 상담 많아

상담을 내용별로 구분해보면, 총 111건 중 가사사건이 85건으로 76.6%를 차지하였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각 1건씩(각 0.9%) 있었고, 그 외 기타가 24건(21.6%)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항목은 이혼으로 총 111건 중 42건(37.8%)에 달했다. 다음은 친권/양육권(8건, 7.2%), 부부갈등·양육비·면접교섭권 각 7건(각 6.3%), 유언/상속(6건, 5.4%), 가사기타(2건, 1.8%), 위자료/재산분할·친생부인·입양·친양자·부양·성변경·파산·형사기타가 각 1건씩(0.9%)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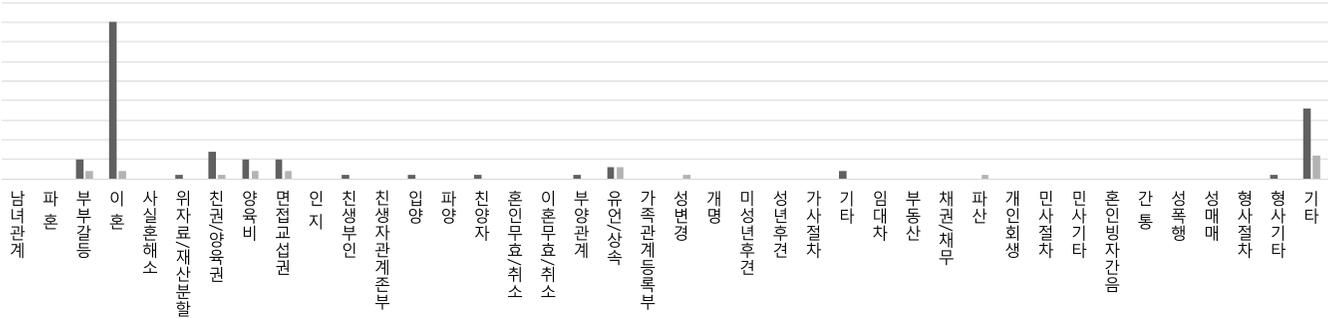
남녀별로 살펴보면, 먼저 여성은 총 91건 중 이혼이 40건(44.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친권/양육권 7건(7.7%), 부부갈등·양육비·면접교섭권 각 5건(각 5.5%), 유언/상속 3건(3.3%), 가사기타 2건(2.2%), 위자료/재산분할·친생부인·입양·친양자·부양·형사기타 각 1건(각 1.1%)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총 20건 중 유언/상속이 3건(15.0%)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부부갈등·이혼·양육비·면접교섭권 각 2건(각 10.0%), 친권/양육권·성변경·파산 각 1건(각 5.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	성별	여 성		남 성		합 계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30만원 이하		4	4.4	-	-	4	3.6
31 ~ 100만원 이하		8	8.8	-	-	8	7.2
101 ~ 200만원 이하		20	22.0	4	20.0	24	21.6
201 ~ 300만원 이하		11	12.1	2	10.0	13	11.7
301 ~ 500만원 이하		6	6.6	5	25.0	11	9.9
501만원 이상		2	2.2	3	15.0	5	4.5
무		40	44.0	6	30.0	46	41.4
합 계		91	100	20	100	111	100

사건내용별

■ 여성 ■ 남성



사건 내용	성 별	여 성		남 성		합 계	
		사건수(명)	백분율(%)	사건수(명)	백분율(%)	사건수(명)	백분율(%)
가 사 85건 (76.6%)	남녀관계	-	-	-	-	-	-
	파 혼	-	-	-	-	-	-
	부부갈등	5	5.5	2	10.0	7	6.3
	이 혼	40	44.0	2	10.0	42	37.8
	사실혼해소	-	-	-	-	-	-
	위자료/재산분할	1	1.1	-	-	1	0.9
	친권/양육권	7	7.7	1	5.0	8	7.2
	양육비	5	5.5	2	10.0	7	6.3
	면접교섭권	5	5.5	2	10.0	7	6.3
	인 지	-	-	-	-	-	-
	친생부인	1	1.1	-	-	1	0.9
	친생자관계존부	-	-	-	-	-	-
	입양	1	1.1	-	-	1	0.9
	파양	-	-	-	-	-	-
	친양자	1	1.1	-	-	1	0.9
	혼인무효/취소	-	-	-	-	-	-
	이혼무효/취소	-	-	-	-	-	-
	부양관계	1	1.1	-	-	1	0.9
	유언/상속	3	3.3	3	15.0	6	5.4
	가족관계등록부	-	-	-	-	-	-
	성변경	-	-	1	5.0	1	0.9
	개명	-	-	-	-	-	-
	미성년후견	-	-	-	-	-	-
성년후견	-	-	-	-	-	-	
가사절차	-	-	-	-	-	-	
기타	2	2.2	-	-	2	1.8	
민 사 1건 (0.9%)	임대차	-	-	-	-	-	-
	부동산	-	-	-	-	-	-
	채권/채무	-	-	-	-	-	-
	파산	-	-	1	5.0	1	0.9
	개인회생	-	-	-	-	-	-
	민사절차	-	-	-	-	-	-
형 사 1건 (0.9%)	민사기타	-	-	-	-	-	-
	혼인빙자간음	-	-	-	-	-	-
	간 통	-	-	-	-	-	-
	성폭행	-	-	-	-	-	-
	성매매	-	-	-	-	-	-
형사절차	-	-	-	-	-	-	
형사기타	1	1.1	-	-	1	0.9	
기 타 24건(21.6%)		18	19.8	6	30.0	24	21.6
합 계		91	100	20	100	111	100

김진영 상담위원

웃고 대화하고 서로에게 집중하며 다시 행복해질 힘을 얻는 시간

“아이의 웃음이 좋은 건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끼게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이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가서도 이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행복캠프>의 연장선처럼 살아보고 싶네요.”

“코로나19로 집에만 있어서 아이는 우울했었다고 한다. 말수가 점점 줄고 짜증은 점점 늘고 우린 서로를 비난하며 언성을 높이는 시간이 많았었다. 이번 캠프로 아이가 웃고 아이와 손잡고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우리 집에 꼭 필요한 힐링 시간이었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단둘이서는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에게만 집중하며 보냈던 적이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합니다. 심포가 필요했던 저에게도, 또 엄마와 함께였어도 빈자리가 느껴졌을 아이에게도 너무나 고마운 시간입니다.”



- 일 시 : 2022년 8월 15일(월) ~ 8월17일(월)
- 장 소 : 한국여성수련원(강원도 옥계)
- 참가자 : 비혼모 36명, 자녀 37명
조은경, 천다라 상담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성호 지사장, 김명숙 계장, 송준영 주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주희 소장(러니코리아),
홍진희 소장(이미지&매너아카데미)
애란네트워크 직원 등 총 90명
- 후 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여름 비혼모가정워크숍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강원도 옥계 한국여성수련원에서 2박3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로 진행되었다. 이번 캠프에는 비혼모 36가정이 참여했으며, 비혼모를 대상으로 가족법교육과 이미지 메이킹(퍼스널 컬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지원교육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교육 후 인지, 친권, 양육권, 양육비, 성과 본 변경, 입양, 파산면책 등에 대한 가정법률상담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양한 임대주택 신청자격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그동안 궁금하고 어려웠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실질적

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으로 경포 아쿠아리움, 강릉 아르떼뮤지엄, 쌍둥이 동물농장, 공예작품만들기, 해변체험활동(바나나보트, 수영 등)을 통해서 자녀와 즐거운 추억을 쌓았으며, 다른 비혼모 가족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연대감을 더하는 시간이 되었다.

캠프에서 비혼모 엄마들은 자녀를 혼자 양육하면서 겪는 청소년 자녀와의 갈등,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외국인 비혼모의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와 한국국적 취득문제, 양육자 및 친권자지정의 어려움, 양육을 반대하는 가족갈등, 한부모가정으로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 주거문제, 의료비 지원, 인지(양육비, 양육자 및 친권자지정)청구, 채무 등에 관련한 법률문제와 비혼모시설 퇴소 후의 자립준비(주거, 생활 등) 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담, 교육, 가족여행, 가족체험, 돌봄시설과 아이돌봄지원확대, 자녀교육지원, 한부모지원(수급비, 일자리지원, 취업, 자격증취득, 학원비, 진로체험), 임대정보, 경제적 지원, 의료비지원, 법률상담과 무료소송 등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2009년 7월에 비혼모 캠프를 처음 시작한 이래 올해로 14년을 맞았다. 그동안 사회적·정책적으로 비혼모들을 위한 제도와 지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차가운 시선 속에서 비혼모들이 느끼는 고통이 여전한함을 알 수 있었다. 비혼모 가정이 겪고 있는 법적·경제적·제도적·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이들이 당당히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과 제도 개선,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며 비혼모 가정의 편에서 이들의 권리와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상담소의 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노력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

오랜만에 아이와 버스 여행을 합니다. 아이와 둘이 떠나는 여행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아이는 오랜만에 친한 친구와 새롭게 만난 반가운 사람들과 함께하니 흥겨워서 재잘재잘 밝게 미소를 짓습니다. 엄마로서 이런 아이의 밝은 모습은 낮습니다. 저렇게 밝게 웃고 노는 아이였나, 바다에서 놀 생각에 두근거리는 얼굴로 일어나는 아이 곁에서 참 행복했습니다. 행복 캠프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난 아이의 힐링 에너지가 저를 신나고 즐겁게 합니다. 다음 캠프에도 꼭 초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자녀 소감

어제 정말 재밌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오늘 동물농장과 바다 수영이 정말 기대됩니다.

박○○

저는 중3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엄마입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일자리도 잃고 직업도 바뀌고 또 아이도 수업을 하며 지난 2년 동안 저희 가정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학교 입학하고 그 무섭다는 중2까지 모두 예민한 시간에 부딪히지 않게, 또 소득격차, 교육격차, 문화생활 격차 모두가 드러나지 않기에 온라인 학습을 한 것이 한 편으론 다행인가 싶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을 맞이해 모두 휴가를 가는데 만약 저희 가정이 혼자서 여행계획을 짜고 휴가를 계획했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비용 또한 많은 부담이 되었을 건데, 이렇게 2박 3일 동안 알차게 꾸려주시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하고 감동이었습니다. 아이는 캠프 오기 전부터 정말 행복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깃거리가 생겼다면 즐거웠고, 여행을 준비하면서 아이와 많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거기에 중학생 예민할 아이들 또 각 가정의 아이들의 연령을 고려해 개별 방까지 준비해주셔서 아이와 여행 내내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의 고민도 듣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자녀 소감

엄마랑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고, 오늘 간 아르떼 뮤지엄에서 예쁜 그래픽들인 폭포꽃 바다 등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바다도 정말 예쁘고 놀기도 딱 좋았던 것 같다. 바다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쉬고 있던 게 기억에 남는데 얼마 남지 않은 방학을 행복하고 알차게 보낸 것 같아서 좋았다. 내년에도 꼭 다시 와서 좋은 시간과 추억 함께 쌓아서 가고 싶다.

김○○

저는 자립을 준비하는 싱글맘입니다. 아이는 7살 여아인데, 아이의 욕구가 커지면서 저의 경제적 독립 의지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아이랑 처음 왔습니다. 어릴 때는 어리다는 이유로, 조금 커서는 코로나로 인해 미루었습니다. 7살에 파도에 몸을 맡긴 아이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매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달고 사는 저에게는 2박 3일의 시간이 아이와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도 미래를 걱정하는 저에게 온전히 아이와 현재에 머무를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함께해서 걱정도 있었지만, 프로그램도 여유 있고 좋았습니다. 8월 31일 양육비 소송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선생님의 친절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저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었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내일처럼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오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진행해 주신 법교육은 저

의 현실과 아이들 양육에 고민이 많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준비해주신 브로슈어와 책자도 두고 보기 좋을 것 같아 든든해요. 둘째가 정신없이 몰아쳐서 두서가 없네요. 친권자에서 양육비채권자가 되는 것! 집행권한이 있고, 없고! 부를 특정하는 것은 마음! 인지청구는 사실상의 부와 자의 관계를 밝히는 것! 무엇보다 오늘 올림이 있었던 부분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명심할게요! 비단 양육비 문제만이 아니어도 삶에 필요한 법을 대하는 자세 같아 잘 기억해두고 살겠습니다! 법적인 자문과 상담도 늘 감동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사람의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시간에도 늘 신경 써 주시고 표현해주시는 덕분에 캠프를 통해 지지와 사랑 느끼며 충전되고 힐링되어 아이들과 더 감사한 삶 살아가는데 큰 힘 받아요! 감사합니다. 둘째 때문에 이만 줄이지만 글로 적지 못하는 감사가 정말 많습니니다! 감사합니다!

조○○

2019년생 아이의 엄마입니다. 4년 동안 정말 집콕 육아만 한 것 같아요. 올해 들어 나들이를 시작하다 이렇게 2박 3일 캠프까지 오게 되어 또래 엄마들끼리는 “출소한 기분이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바람 이런 냄새 참 소중한 것들 잊고 살던 것들에 행복을 느끼게 된 2박 3일이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좋은 건 얼마나 행복하지를 느끼게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이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가서도 이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행복캠프>의 연장선처럼 살아보고 싶네요.

한국여성수련원은 정말 좋았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다들 친절하시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제가 우리 아이와 함께 대접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가 ‘여기가 우리집이야?’라고 묻는데, ‘응 우리 3일 집이야’라고 했어요. 저는 친정이 없는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쉬고만 싶게 해주는 엄마 같은 원장님과 친정 식구같은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꼭 쓰고 싶었는데 눈물이 나네요. 너무 감사해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첫 상담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육비 소송, 친자확인 소송 제게는 멀
 게만 느껴졌어요. 저도 해볼 만큼 해봤습니다. 만삭에 계단
 을 올라 법률상담을 받고, 관공서 법률상담을 신청해서 오
 라는 날짜에 가보고, 거래처 고문 변호사님께도 토로했어
 요. 뼈에 새길 피해를 받았는데 잊을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는데, 해서 무엇하냐’라는 대
 답과 ‘시간이 다 되었다’ 또는 ‘모든 서류 자료 다 주고 상담
 했는데 검토하고 연락주겠다’ 하고 무소식이었어요. 그러
 다 보니 경험으로 배운 절망은 제 입을 단게 하고, 제 손은
 내리게 하더군요. 잊어야 하는 억울함도 있구나 싶은 마음
 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엄마로서 단단하게 사는 법이라고
 느꼈으니까요.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나는데 우는 엄마로
 살고 싶지 않다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 그런 철
 용성 같은 “법과의 거리두기”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자
 꾸 좁혀가시네요. 제가 한 번 더 용기를 내도될까요? 저는
 상담시간이나 사례로써가 아닌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도움을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가 보
 니다. 마음의 문을 열 시간이요.

“서대문구에서 1명 뽑는데 그래도 지원하시겠어요?”라
 고 말하는 꿈나래 통장 담당 공무원께 제가 그랬어요. “그
 럼요 이걸 아이가 받는 건데, 노력은 해줘야죠” 이것도 불
 편하고 절망적이어도 아이의 권리니까 노력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간적인 믿음 감사합니다.

김○○

2022년 여름, 비도 많이 오고 뉴스에서는 수해 입은 지
 역 산사태 등등 여러 곳에서 난리 아닌 난리를 겪고 코로나
 가 다시 기승을 부릴 무렵 하루가 무기력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아이를 위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
 는지, 아이를 아빠 없이 키우면서 어떻게 그 빈자리를 채워
 줄지 ADHD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가 심리적 안정을 못 찾
 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나 또한 우울증으로 힘든 나날에
 코로나까지 걸려서 2~3일 고열로 앓고 있었던 날... 심적으
 로 너무나 힘들었다. 거기에 아이까지 코로나에 걸려 해열
 제도 듣지 않아 고열로 밤을 보냈다. 다 포기하고 싶고, 앞
 으로의 생활도 불안했다. 무기력한 하루, 똑같은 일상을 벗

어나고 싶었다. 그때쯤 한부모 복지상담소에서 한국가정법
 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이랑 행복캠프 안내 문자
 를 받았다. 순간 나는 무조건 이 캠프를 가야한다!!라는 생
 각만 들었다. 알고 있다. 캠프를 갔다 온다고 해서 내 형편
 이 나아지거나 내 우울증이 극복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
 을. 하지만 지친 일상에 조금의 쉼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아이
 에게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해줄 기회이기에 캠프에 너무나
 가고 싶었다. 중간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도 자가격리 기간
 이 이 여행과 겹치지 않아서 감사했다. 아이 또한 겹치지 않
 게 걸린 것에 감사할 정도로 가고 싶었다.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고 기대가 되었다. 캠프는 당일 버스를 타고 가는 내
 내 신이 났고 진짜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 여유로움이
 란 걸 느꼈다. 도착해서 먹은 밥도 꿀맛이었다. 아이도 한껏
 들떠 즐거워했다. 가족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도 유익했
 고 탁아반에 가 있는 아이도 너무 즐겁게 놀고 있었다. 오늘
 다녀온 쌍둥이 동물원에서는 더워서 몸은 힘들었지만 “행
 복”했다. 요즘 행복이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지도, 생각하지
 도 못했던 말이다. 그런데 이 캠프에 있는 동안은 행복했다.
 더 행복해지고 싶다. 앞으로 쭉~ 이 여행이 끝난 후 나는 행
 복을 찾을 것이다. 소소한 일상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육아
 에서도 어디서든 말이다. 항상 오면 하는 말이지만 행복캠
 프를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
 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감사합니다”

이○○

그동안 너무도 바빴습니다. 비누 공방을 2년 동안 운영
 하며 강의가 끊이지 않게 들어오고, 물론 제품이 잘 팔려서
 바빴다면 좋았겠지만. 그보다는 먹고사느라 미련하게 분주
 했죠. 최근에는 공방을 이전하게 되어서 이래저래 더 바빴



습니다. 하루에 아이 얼굴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몇 십 분이 채 되지 않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 등원, 하원, 씻기기, 먹이기, 재우기 등 대부분 어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2박 3일 온전히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언제 였던가 기억도 나질 않아요. 이틀째인 오늘 저녁을 먹고 아이에게 “캠프로 와서 뭐가 제일 좋았냐”고 물었습니다. 튜브를 타고 있는 자기를 엄마가 잡아주고, 파도가 올 때마다 이긴 게 너무 좋다고. 엄마랑 함께해서 좋았다고 합니다. 그 말에 그냥 울컥했어요. 아직 7살 아이가 여기 와서 자는 하룻밤 동안 밤새 저를 끌어안고 쿵쿵 냄새를 맡더라고요. 강아지처럼. 가족이란 기억이라는 벽돌로 사랑이라는 탑을 쌓는 일인 것을. 바쁘다는 이유로 채워주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캠프로 두고두고 오래 기억될 멋진 추억을 만들게 돼서 너무 기뻐요. 한동안은 아이와 캠프 이야기를 하며 얼마나 즐거웠는지 곱씹겠지요?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이번 캠프를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

옥계에 도착해서 경포 아쿠아리움에 가서 펭귄과 여러 물고기, 물범 불가사리, 거북이 등 다양한 생태계 동물들을 보았고, 저녁에는 가정법률 교육을 들었습니다. 법률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해주시니 그동안 궁금한 것도 풀리고, 유익한 상담이었어요. 그리고 슬기로운 비혼 가정법 생활 책을 받았는데, 쉽게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되어 있어서 보기 편했고, 정말 현실적인 것들이 많아서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이번 옥계에서의 여름 캠프로 힘내서 2022년 잘 지내겠습니다.



황○○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었던 행복캠프(옥계)를 올해는 간다는 소식을 듣고 설레는 마음에 잠을 못 잤다.

코로나19로 집에서 수업을 듣고 단축수업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아이는 우울했었다고 한다. 말수가 점점 줄고 짜증은 점점 늘고 우린 서로를 비난하며 언성을 높이는 시간이 많았었다. 이번 캠프로 아이와 웃고, 손잡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우리 집에 꼭 필요한 힐링 시간이었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이번 캠프 준비를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

코로나 전에 옥계의 행복캠프를 한번 왔었어요. 그때 저희 딸의 첫 바다였어요. 바다 파도 맛을 보고 3살짜리가 நீ이 나가서 침을 흘리며 앉아있던 게 너무 귀여웠었고 그때 사진을 찍어줬었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딸에게 그날의 옥계를 이야기해줬어요.

이번 바나나보트는 딸의 첫 물놀이였어요! 저희 딸에게 늘 용감하고 신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빈틈없이 저희를 위해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셔서 행복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빈틈없이 행복하게 웃다가요. 다음에 꼭 오고 싶어요. 그리고 진심 어린 법률상담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두루뭉술하던 저의 고민에 길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큰애가 10살이 되도록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한 저희 가족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덕분에 기대 이상의 여행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애 둘을 키우는데 법적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 너무 막막하고 힘들어서 손을 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셔서 큰아이의 소송은 원만히 잘 해결되었어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를 찾아가기 전에 다른 변호사분들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힘들 거라고 하셨는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그 복잡함을 감수하고, 오히려 저한테 좋은 결과 나올 것이라면서 힘내라고 위로도 해주셨어요. 지금 둘째도 소송 중에 있지만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처음에 소송을 결심하지 못하고 망설일 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소송할지 말지는 제가 결정하지만, 법률적인 면에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도움을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요. 저한테 이 말은 정말 큰 힘이 되었고, 소송을 결심해서 지금은 애 둘이랑 저랑 같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애 둘을 지금까지 잘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저는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힘을 내서 애 둘을 잘 키워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키우도록 할 겁니다. 이번 캠프는 한부모가족들에게는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써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다시 한번 알아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자녀 소감

안녕하세요. 저는 ○○○이에요. 저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무지무지 좋아해요. 왜냐면 엄마랑 같이 살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저 기억나세요? 사랑해요. 2박 3일 캠프 너무 너무 즐거워요. 바나나 보트 너무 짜릿했어요. 아쿠아리움, 미술관, 해수욕장, 너무나 신기한 하루하루였어요. 다음에 또 가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백○○

안녕하세요. 6살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이번 행복캠프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딱딱한 삶과 중년의 나이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이 너무나 고되고 힘에 겨웠습니다. 미혼모 시설에서 생활하며 여러 프로그램을 접해본 일이 있어서 설렘과 기대보다는 이번 행복 캠프 또한 여타의 다른 프로그램과 다를 것이 없을 거란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옥계에 도착하고 속

소에 들어선 순간 눈앞의 푸른 바다를 보고 나니 마음속 근심 걱정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나들이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 한부모가정의 가장 엄마입니다. 올해 4월에 큰아들이 군대에 입대했는데 저의 기둥이었던 아들이 없으니 허전하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래서 애란원에 가입하고 처음으로 행복캠프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날까지도 가야하나 말아야하나 망설였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11살인데, 사춘기 초입에 접근을 하는지 “엄마? 또 모임이야? 난 안가고 싶어.”라고 말하더라구요. 모임에 다니는 걸 이제 좀 꺼려하네요. 이 또한 아이가 커가고 있는거겠지요? 그래서 망설였는데 안왔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습니다. 아이도 재미있다고 좋다고 여러 번 말을 하네요. 2박 3일 동안 정말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친정엄마처럼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힘이 나고,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박 3일 동안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갑니다.

강○○

맑고 맑은 공기 푸르고 푸른 산 함께 즐기고 싶었어요.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아직 어려서 준비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힘들었어요. 평소 함께 걷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제게 아이와 같은 것을 보고 같이 재미를 느끼는 시간이 주어져서 제게도 아이에게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임○○

아이와 몇 년 만에 온 옥계 바닷가. 올해는 새해부터 바쁘고 정신없는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번 행복캠프를 더더욱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초등 1학년이 되고 반 친구의 폭력으로 인해 저도 마음이 지쳐있고 아이도 많이 상해있었습니다. 속상했던 마음을 바

닷가에 날려버리자는 마음으로 왔는데 역시 이곳은 아이나 저의 마음을 끌어주고 상쾌한 청량감으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신나는 바나나보트로 아이의 눈엔 웃음이 피었고, 입으로는 연신 “엄마 재미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선생님도 오랜만에 뵈어 반가웠어요. 인지청구, 양육비소송에 관한 법적인 문제도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행복캠프는 1년 동안 지치고 힘든 마음을 날려버리고, 남은 한 해를 잘 채울 수 있도록 힘찬 에너지를 가득 채워가는 곳입니다. 이런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

안녕하세요. 행복캠프를 처음 가게 되어서 설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숙박시설, 음식, 프로그램 등 준비하느라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먹고 자고 놀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아들이 행복하다고 웃고, 예쁜 곳을 보면서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니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노는 것과 함께 인지소송도 알려주시고 답답하고 궁금했던 개인적인 아픈 고민도 상담을 받았습시다. 속이 정말 시원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많이 신세지고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아이들이랑 잘 살라고 응원해주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여러 정보와 교육을 통해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의 만족도는 100%입니다.

임○○

한 여름날의 힐링을 선물 받았다.

그동안의 휴가는 휴가랍시고 시간을 내더라도 핸드폰 붙잡고 검색하기 바쁘고 체력은 체력대로 정신력은 정신력대로 밑바닥을 보이면서 아이와 얼굴 붉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재밌는 건 아이는 어제 놀이시간에 이곳에 온 이유가 ‘엄마가 가자고 부탁해서’라고 썼다. 길게만 느껴졌던 2박 3일의 시간이 행복만 가득해서 짧게 느껴져 버린 날. 남이 해주는 삼시세끼 밥을 먹어본 건 아이가 태어난 지 3일 동

안 있었던 산부인과가 마지막이었던 사실에 웃음이 난다. 왜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는 일 년에 한 번뿐인지 모르겠다. 겨울에도 또 오고 싶다.

문○○

아기가 어려서(9개월) 울까 말까 고민이 많았어요. 안 왔으면 큰일 날 뻔 했어요! 숙소도 너무 좋고 바나나보트랑 워건도 너무 재밌었어요! 애란원 생활인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1. 행복캠프(옥계)를 다녀온 자
2. 행복캠프(옥계)를 안 다녀온 자

내년에도 꼭 초대해주세요~ 너무 알차고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급한 성격을 내려놓아 볼게요. 힐링 제대로 했어요! 가기 싫어요 ㅠㅠ

정○○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삼성생명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박 3일 가족캠프를 통해 가족이 너무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나나보트와 다른 보트를 타보았습니다. 몇 년 동안 해변을 오지 못했었는데, 바다를 보니 답답한 마음이 확 터지면서 나도 모르게 자유로운 아주 작은 물고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법률 교육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미혼모 시설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캠프를 왔습니다. 처음에는 교육만 받고 가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아쿠아리움도 가고 동물농장도 가고 물놀이를 할 수 있어서 신나고 두근두근 거립니다. 서울에서는 일이 바빠 아이랑 재밌는 추억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시설에 와서 많은 추억들 남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방도 너무 좋고 편안해서 잠을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모든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

고 저희를 위해 이렇게 애써주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기가 너무 행복해하니 저도 덩달아서 행복을 만끽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김○○

아이들과 모처럼 코로나에서 벗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이번 캠프를 통해 가족 간의 돈독한 애정과 즐거운 연휴도 보낼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

강릉으로 2박3일 캠프를 간다는 소식에 들뜬 마음으로 출발일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엇그제 같다. 내일이면 반드시 서울로 가야 한다니 2박 3일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아쉽다. 세심히 신경 써주신 덕분에 모든 프로그램이 만족스러웠고 아이들도 매우 좋아했다. 또한 교육도 너무 유익했다. 가정법률 교육과 퍼스널컬러까지 너무 필요한 교육이었다. 담당 선생님께서 간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도 세심히 챙겨주셔서 모두 너무 대만족이었다. 나중에 꼭 다시 오고 싶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런 캠프나 프로그램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이○○

4년 만에 행복캠프(옥계)를 다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저희 아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아기가 옥계에 대한 특별한 추억을 갖고 있어, 여름만 되면 옥계에 가고 싶다는 줄랐습니다. 이번에 여름캠프를 다시 신청받는다고 했을 때, 저보다 저희 아들이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캠프에 참가하면서, 훌쩍 커버린 아이들 모습도 신기하고 대견했고, 변함없는 엄마들과 선생님 모습도 반가웠고, 여전히 엄마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한국여성수련원 담당자분들의 노고가 예전보다 더 고맙게 다가왔습니다. 소중한하고 아름다운 추억 다시 만들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

2박 3일 여정 중 하루를 보내며 가장 감사하게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무엇보다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둘이서는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에게만 집중하며 보냈던 적이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합니다. 심포가 필요했던 저에게도, 또 엄마와 함께였어도 빈자리가 느껴졌을 아이에게도 너무나 고마운 시간들입니다. 남은 내일 여정도 기대가 됩니다. 아이의 설렘을 보는 것 또한 감사한 시간이네요. 엄마와 아이에게 소중한 추억거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관계자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했던 법률상담 또한 저에게 너무도 유익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고 있으면서, 보호받길 원했던 저에게 다시 희망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게 마련해주신 시간 같았습니다. 저희를 위해 마련해주신 이번 여행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와 행복캠프에 2박 3일 동안 참여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전 여기가 아이랑 처음인데 솔직히 기대가 없이 왔음에도 좋은 경치에 맛있는 밥과 아쿠아리움, 동물원까지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힐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휴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개최하는 여름캠프에 오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도 너무 신경 써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힘든 일이 많아서 마음에 여유도 없었는데 좋은 경치를 가진 바다도 보고 아이가 맘껏 웃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조은경 상담위원



사춘기 자녀들도 폭력 행위 답습해 서로 다투고 가족 갈등이 커지는 경우

2019버2폭행(2019버4**폭행 (병합))
2020버집4** 보호처분집행감독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6회, 전화상담 4회,
음주문제상담(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6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8회, 전화상담 6회,
부부상담 4회 등 34회

상담기간

2020. 4. 21. ~ 2021. 4. 1.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17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2남(10세, 쌍둥이)이 있다. 행위자는 2019년 1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거실에 있던 행거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하였고, 2월 사건당일에는 피해자와 아들이 쇼핑한 것을 보고 화를 내는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500ml PT 물병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복숭아뼈 부위에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행위자를 6개월간 알코올 회복 센터에 치료위탁 보호처분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 보호처분하였다.

피해자의 갈등요인 및 주 호소 내용은 1. 행위자가 결혼 전부터 술을 즐겼고 결혼 후 거의 매일 술을 마셨으며 최근

가게를 접고 집에 있으면서부터는 오전이나 낮 시간에도 술을 마심. 2. 2019년 신정 명절에 시가 식구들과 함께 있기 싫어 친정에 갔다 저녁 늦게 돌아오자 행위자가 만취상태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현관 옆 나무 행거를 집어 던지려고 해서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음. 그 이후부터는 계속 폭력적인 행동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있음. 3. 아들들도 행위자의 폭력적인 행동을 답습하고 자기들끼리도 과격하게 싸우는 일이 잦아 경찰에 계속 신고하고 있으나 오히려 아이들은 피해자를 원망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음. 심지어 피해자에게 폭언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함. 4. 자신은 모든 문제가 행위자와 시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행위자는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행위자의 갈등요인 및 주 호소 내용은 1. 피해자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모든 문제가 행위자와 시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함. 2. 행위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하는데 피해자에게만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3. 폭력 상황이 아님에도 피해자는 주관적으로 폭력상황으로 판단하고 계속 경찰신고를 하고 있음. 4. 아들들의 다툼에도 경비실에 전화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오히려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 상황임. 5. 가족 문제 중에는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할 것도 있는데 뭐든지 외부도움(경찰신고, 상담 등)으로만 풀려고 하니 이제는 경찰신고나 상담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부부는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하였으며 이를 실천과제로 부과하였다. 1. 서로를 자극하는 언행 하지 않기. 만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말을 했을 때는 그만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래도 계속되면 내용을 기록해두고 다음 상담 때 다루기.

2. 자신은 이렇게 해도 되고 상대방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의 태도 중단하기. 3. 부부 모두 건강한 일과 즉,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이도록 행위자는 술을 자제하고 낮 시간에는 가급적 운동이나 무엇을 배우기. 피해자 역시 밖에 나가 일을 하거나 활동하기. 4. 과도한 경찰신고, 외부에의 도움 요청은 자제하기로 하고 부부 각자가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등이다.

상담 진행 중 부부가 살던 시모 명의 집을 처분하여야 할 필요와 피해자의 바람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피해자와 아이들은 학교 옆 아파트로 이사하여 지내게 되었다. 부부 간 충돌은 줄었고, 폭력은 재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사 후에도 한동안 양육자인 피해자와 자녀들 간에 충돌이 있었고 경찰신고도 잦았는데, 이후에는 좀 완화되었다. 행위자는 별거를 원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바람에 따라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부부 모두 자신의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고 상대방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였다.

상담 종결시 부부관계는 냉담하였고, 부부는 계속 별거 상태였다. 부부는 아이들이 미성년인 동안에는 별거라도 하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부부 모두 자녀들에 대한 애정과 부모 역할에 대한 의식이 강하여 두 사람의 향후 관계에 강점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면서 상담을 종결하였다.

2019버3*특수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2회,
교육강좌(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3회,
집단상담(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1회
-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1회
- 부부상담 5회 등 16회

상담기간

2020. 6. 25. ~ 2020. 12. 24.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지 24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1남 1녀(23세, 19세)가 있다. 행위자는 2019년 10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동문회에 가서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식탁 의자를 던지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의자에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함께 상담받도록 결정하였다.

부부갈등 요인으로 피해자는 행위자가 공격적으로 대화하고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점을, 행위자는 피해자의 늦은 귀가를 꼽았다. 갈등요인을 인식한 피해자는 사건 이후 행위자가 바라는대로 친구들과의 모임을 줄이는 등 노력하였고, 행위자도 이를 인정하였다. 상담기간 중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재발하지는 않았지만 화가 나면 스스로를 때리는 행동을 하였다고 피해자는 보고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행위자의 태도가 이전과는 달랐기에 피해자도 노력하였고 향후 더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싶다는 바람을 갖게 되었다. 상담 중 피해자는 취업을 하였고 행위자는 코로나 이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를 기회로 자격증 취득 공부를 하였다.

상담 종결시 행위자는 자신이 권위적으로 사고하고 억압적인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남자인 자신도 안마시는 술을 아내가 마시는 것, 그리고 남자인 자신보다 더 늦게 귀가하는 것 등을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그러한 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수용하려고 노력하였다. 사건당시 부부관계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점 미만, 상담 종결시는 8~9점으로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부부관계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점, 상담 종결시는 7점으로 평가하고 행위자가 대화시 큰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어떻게 할까요?



이 혼 9

● 각방을 쓰면서 부부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Q 문 26 | 2년 전 남편과 다툰 후 각방을 쓰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해를 청하고 남편에게 한방을 쓰자고 하였으나 남편은 거절하였고 그 후 한집에 살면서도 별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더이상 견딜 수 없는데 이혼사유가 될까요?

A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각방을 쓰며 이유 없이 성생활을 거절하는 것은 아내를 고의로 유기하는 것이 되고(동법 제840조 제2호),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되며(동법 제840조 제3호), 나아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840조

제6호). 협의이혼을 제의해 보시고 불응하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잦은 가출은 이혼사유가 된다

Q 문 27 | 아내가 결혼생활 3년 동안 수차례 가출을 하였습니다. 사소한 일로 집을 나간 아내를 한 달 또는 두 달쯤 지난 뒤 수소문하여 데려오곤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5개월 전에 나가 돌아오라고 설득해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저와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가정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하려고 합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자주 집을 나가는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지요?

A 뚜렷한 이유 없이 무조건 살기 싫다는 이유로 가출이 잦다면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

● 집을 나가 6개월이 되어도 자동이혼은 안 된다

Q 문 28 | 아내가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됩니다. 가출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인지요?

A 법률상 '자동이혼'은 없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Q 얼마 전 은행에 제출할 일이 있어서 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니 주민등록번호의 마지막 숫자 하나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의 제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주민등록증에는 맞게 되어 있는데 아마 담당공무원이 실수로 잘못 입력한 것 같습니다. 평소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볼 일이 없어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 정정이 가능한지요?

A 등록부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구·읍·면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89조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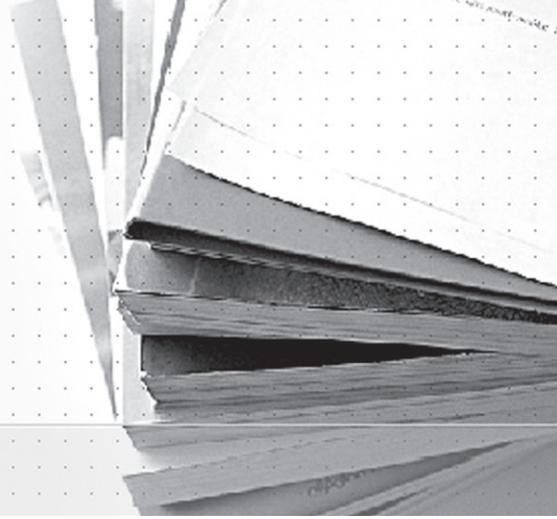
다만,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구·읍·면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동법 제18조 제2항 단서), 이렇게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1. 등록부의 기록이 오기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이 법 시행 전의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2.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또는 자녀의 등록사항 등에 의한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한 때
3.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
4.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때
5.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6. 그 밖의 정정 또는 기록할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진영 상담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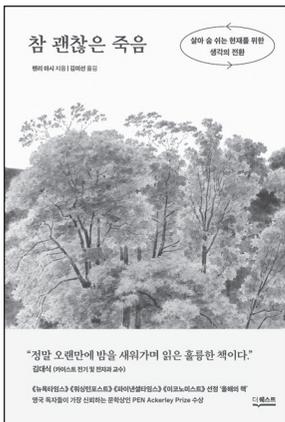


참 관찰은 죽음

살아 숨 쉬는 현재를 위한
생각의 전환

헨리 마시 지음
김미선 옮김

더퀘스트, 2022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경외과 의사이자 섬세한 문필가”

25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책의 두, 세 개 에피소드만 읽어도 조금은 진부하게도 지은이를 설명하고 있는 이 문구, 특히 ‘섬세한 문필가’라는 부분이 잘 이해된다.

뇌 한가운데 있는 내분비기관으로 사람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을 만드는 곳이 송과체다. 여기에 생김 모양 수술에 관한 내용을 다룬 첫 에피소드 “모든 외과 의사의 마음 한구석엔 공동묘지가 있다”부터 무감각통증 등 온갖 통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다룬 마지막 에피소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말”까지 모든 에피소드가 잘 구성된 장르 소설 혹은 드라마처럼 긴장감이 넘치고 흥미진진하며 때로 눈물겹게 공감이가는 책 『참 관찰은 죽음』이다.

신경외과 수술 현장이 눈앞에 보이듯 생생하게 그려지고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수술에 임하는 의사의 심리가 냉정할 정도로 솔직하게 나타나 있어 쉽지 않은 주제인데도 몰입도가 상당한 책 읽기였다.

지은이 헨리 마시는 신경외과 의사로 까다롭고 어려운 뇌수술을 하며 3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다. 그가 접한 삶과 죽음의 경계, 인생의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가 이 책 『참 관찰은 죽음』이다. 이 책은 극적으로 환자를 살려낸 미담과 뼈아픈 실수담까지 모든 이야기를 통해 관찰은 죽음을 위한 최선이 무엇일지 생각하게 한다. 의사로서 그는 환자의 최선만을 생각하며 의미 없다고 판단한 치료를 과감히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자의 실낱같은 희망을 위해서라면 가망이 없어 보이는 수술을 감행하기도 한다.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는, 떠나는 사

람과 떠나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냉정한 의학 지식과 따뜻한 공감 사이, 의사로서 그의 존재를 생각하며 더불어 우리의 죽음, 나의 죽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게 된다.

사람은 참 쉽게 죽기도 하지만 때로 생명의 힘이란 얼마나 대단한가, 또 그 대단한 생명이란 결국 죽음과 마주하고 있기에 대단한 것이기도 하니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고 그에 대해 생각할 때 삶은 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뇌수술 장면의 생생한 묘사는 정말 흥미롭고, 옥스퍼드에서 정치학, 철학, 경제학을 공부한 후 방황 하며 탄광촌에서 병원 보조로 일하다 이과적인 바탕 하나 없이 의대에 진학한 저자의 인생도 흥미로웠다. 더불어 그 과정이 가능한 시스템이나 사회적 배경도.

“외과 의사들의 수술하는 모습을 구경하며 6개월을 보낸 나는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내가 할 일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근본적으로는 남을 위한 일이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폭력적이라 할 수 있는… 손재주와 잔머리의 조합… 그러나 이런 결정 뒤에도 진정한 나의 천직을 발견하는 데는 8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다. 수련의로서 첫 번째 동맥류 수술을 보고 난 다음이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문장, “다시는 선생님을 뵙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삼차신경통 수술 환자와의 대화였다.

상담소와 내담자의 관계가 생각나는 장면이다. 인생의 어두운 골목 끝에서 만난 상담소, 문제가 해결되면 내담자에게 상담소에 왔던 시간은 지워 버리고 싶은 기억들일 것이다. 그런 운명들이 있다.

이숙현 편집부장



2022년 하반기 자원봉사자 법교육

본소의 2022년 하반기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봉사자 대상 교육이 8월 25일과 29일에 진행되었다. 교육은 상담소의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이해와 가족법 및 가정폭력 관련 법 교육으로 61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지원자들이 참여하였고 조은경, 박상진 상담위원이 강의하였다.

본소의 자원봉사활동은 법학전문대학원 및 각 대학생들이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공익 및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각종 법률 및 사회교육사업, 조사연구, 출판 홍보 사업을 통해 법률과 교육, 법개정 운동을 통한 성평등 및 가정의 민주화에 앞장서는 본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의 소외계층 특히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법과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가족문제 등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있다.

직원재교육 실시 문화적 충전 통해 업무 역량 향상 도모해

지난 8월 23일 본소 강당에서 직원재교육으로 영화 감상 시간을 가졌다. 상담소는 법률, 문화 등 다양한 방면의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향상하고 나아가 심신의 안정을 돕기 위해 정기적인

직원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감동적인 영화 감상을 통해 문화적 소양을 더하고 마음을 쉬도록 하였다. 함께 감상한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2016년 개봉한 호주 영화 <라이언>이다(가스 데이비스 감독, 데브 파텔 주연 등).

2012년, 전 세계는 한 인도 청년의 이야기로 화제가 되었다. 1986년 5살의 나이에 기차역에서 잠이 들었다가 집을 잃어버리게 된 '사루 브리얼리'가 1987년 호주의 새로운 가족 곁으로 입양을 간 후 25년 만에 다시 헤어진 가족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주인공 '사루 브리얼리'는 어린 시절 기억을 잊은 채 성인이 되었으나 2008년, 우연히 어린 시절 인도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친구들로부터 위성 지도프로그램인 '구글어스'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 이후 단편적인 기억에 의존한 채 집을 찾기 시작하였다. 1986년 당시의 기차 속도와 시



간을 바탕으로 오차 범위를 설정하고 그 역 주변을 하나하나 구글어스가 제공하는 위성 사진으로 확인하기 시작하여 2011년, 작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결국 인도의 집을 찾아냈고 2012년, 인도를 떠난 지 25년 만에 가족들과 재회한 것이다. 상담소 직원들은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를 다룬 영화 한 편을 통해 충분한 휴식과 충전을 하게 되었다.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지난 8월 18일 본소 교육프로그램으로 김병후 원장(정신과전문의, 본소 이사)의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가 zoom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는 '폭력적인 배우자에 대항하는 법'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강사는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가정폭력

은 절대로 쉬쉬해서는 안 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진행되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 강의는 9월 22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방역을 철저히 하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진

2022년 8월 상담통계

총 건수 5,021				
법률상담 (4,354)				
면접	전화	인터넷	순회	지상
1,035	3,152	93	73	1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482		81		104

• 인터넷 정보 이용 72,464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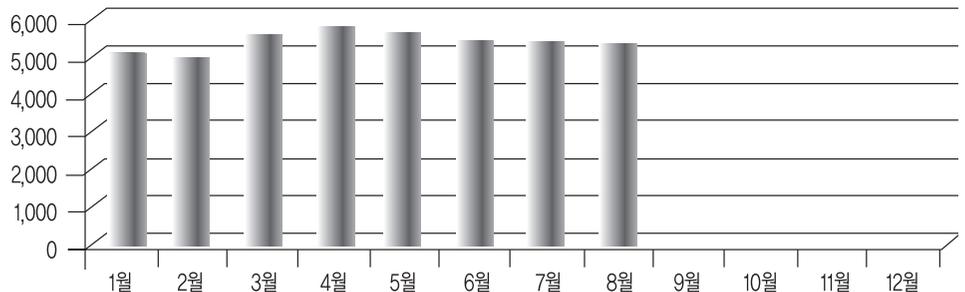
2022년 8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5,021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354건(86.7%), 화해조정 482건(9.6%), 소장 등 서류작성 81건(1.6%), 소송구조 104건(2.1%)이었다.

법률상담 4,354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2년 7월에 비해 가사사건은 남녀관계(0.2%→0.4%), 위자료·재산분할(9.4%→10.2%), 친권·양육권(5.2%→5.7%), 양육비(7.2%→7.4%), 인지(1.0%→3.0%)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민사사건은 채권·채무(0.3%→0.4%), 파산(1.9%→2.3%), 개인회생(0.3%→0.6%), 민사기타(0.5%→2.2%), 형사사건은 형사절차(0.1%→0.3%)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354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035건(23.8%), 전화상담 3,152건(72.4%), 인터넷상담 93건(2.1%), 순회상담 73건(1.7%),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22년
월별
총건수



행 중이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으나, 방역지침의 변화에 따라 본소에서도 점진적으로 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다.

● **현장실습 8. 1 ~ 8. 31**

동국대학교 최예진, 허인서, 왕동경, 김동범, 박재우
이화여자대학교 민정원, 정재원

● **출장법교육 및 순회상담**

- 8.3. 순회상담 - 과천여성비전센터
- 최수진 상담위원
- 8.17. 순회상담 - 과천여성비전센터
전규선 상담위원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8월3일 상담소 8층에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용 교수가 진행하는 대법원 용역 과제 “가정법원의 적극적 후견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바람직한 역할 모델” FIG 인터뷰에 미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하여 김민선 변호사와 함께 참석하였다. 16일 기재부 법제예산과에 김현옥 재무회계과장과 함께 방문하였다. 2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국가족법학회에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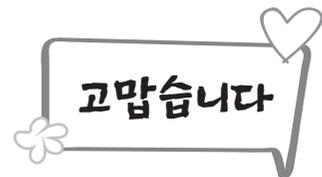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8월 3일 차연실, 박상진 상담위원과 함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용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주관하는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 “가정법원의 적극적·후견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전문지원기구 설치 및 바람직한 역할 모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가정폭력상담소의 역할 및 가정법원과의 관계의 발전방향 등에 관한 FIG에 참여하였다. 18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사건을 조정하였다. 30일에는 서울경찰청의 서울 각 경찰서 경찰관 대상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대응 실무과정” 교육에서 “가정폭력처벌법과 주요 판례”를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하였다.

2022년 8월 자원봉사자

- 야간상담을 해주신
김소이, 배선경,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오영미 변호사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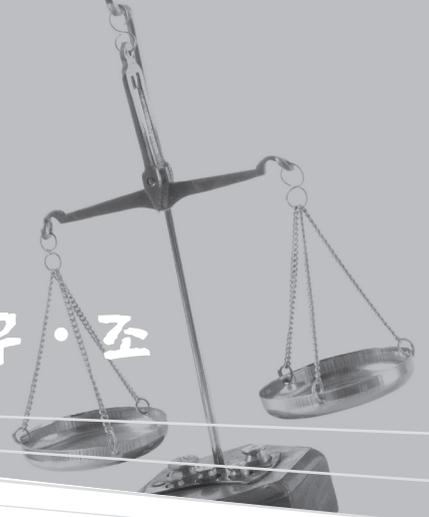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전혼 자녀 추행 이후 16년간 별거한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2-1-48

담당 : 두원수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40대)는 피고(남, 40대)는 2005년경 재혼한 법률혼 부부다. 2006년 2월경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전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추행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피고가 전혼자녀의 명의를 원고 모르게 빌려 휴대폰 2대를 개통하였고, 통신비를 연체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원고는 피고와 헤어져 현재까지 약 16년간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7. 1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전 남편의 명의도용으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88

담당 : 이수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0대)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성장하였다. 당시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퇴소해야 하는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육원을 나온 후, 같은 보육원 출신 지인들과 모여 살며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전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다. 하지만 전 배우자는 술, 노름, 폭행을 일삼았으며 신청인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해 채무까지 발생시켰다. 신청인은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도 결혼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며 폭행을 일삼는 전 배우자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 가출하였다. 이후 영업직원으로서 일을 하며 생활하였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출소 후에는 오갈 곳이 없어 여성보호쉼터에서 무상거주를 하게 되었고, 허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척추수술을 받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종교생활을 하며 교회에서 무상거주 중이며,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척추재활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태로는 단 2시간도 앉거나 달릴 수가 없어 근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건강 상 이유로 채무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신청인은 채무를 해결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8. 11.)

채무자를 면책한다.

**아내 명의를 도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아내를 폭행 및 감금한 남편과의 혼인취소**

법률구조 2021-1-441

담당 : 이연주 변호사

사건명 : 혼인취소 등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30대)는 2021년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혼인 전 피고는 자신의 이혼전력이나 범죄전력, 그 외 다수의 사기 전력을 숨긴 채로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며 혼인신고를 서두를 것을 독촉하였다. 혼인 이후 피고는 원고 명의의 사업장을 개설해준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공인인증서와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한 2021년 3월경 피고는 원고에게 함께 지방에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함께 죽자며 원고를 협박하고, 거주하던 모텔방에서 나가려던 원고를 폭행 및 감금하였다. 이 사건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협의이혼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연락을 두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전주지방법원 2022. 5. 10.)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3. 8. 인천 서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2022.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명시 절차에 응하지 않은
부에 대한 감치 결정**

법률구조 2021-1-489, 490

담당 : 김경수 변호사

사건명 : 재산명시, 채무자감치

내용 : 채권자(여, 40대)와 채무자(남, 40대)는 2011년 12월 혼인신고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6세)을 두었으나, 2018년 1월 협의 이혼하였다.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르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8년 2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씩 매월 1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는 부모 공동, 양육권자는 채권자로 정하였다. 채권자는 무직의 상태로 장애와 질병을 갖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동안 채권자는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여러 잔업을 했으나 홀로 양육비를 부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채권자가 건강상의 문제로 수술 후 입원해 있는 동안 채무자는 잠시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는데, 입원 중이던 채권자에게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라고 하며 양육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또한 채무자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불규칙하게 양육비를 지급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재산명시를 신청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재산명시가 결정된 후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결정까지 받게 되었다.

결과 : 재산명시 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1. 25.)

-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
- 감치 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6. 16.)
- 채무자를 감치 10일에 처한다.
- 감치할 장소를 흥성교도소 서산지소로 정한다.

**미지급된 양육비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행하지 않는 부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1-1-492

담당 : 이승익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0대)과 피신청인(남, 50대)은 2007년 1월 혼인신고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10대, 남 10대)을 두었으나, 2017년 6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며, 당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다. 또

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8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월 70만 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30년 1월까지 월 35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신청인은 이혼 후 자영업을 하다가 파산하게 되었고 기간제 계약직으로 최저지급을 받으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다. 신청인은 사건본인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여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 세 식구의 최저 생계비용만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신청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신청인은 2019년 6월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다. 피신청인은 감치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이행명령 결정에 따른 3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이를 제외한 양육비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대구가정법원 2022. 6. 23.)

1. 피신청인은 대구가정법원 2016드단00000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의 2017. 6. 8.자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2022. 2. 28.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98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이 명령이 피신청인에게 고지된 날이 속한 달부터 14개월간 매월 말일에 월 70만 원씩을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던 남편과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1-1-508

담당 : 김재성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60대)는 피고(남, 50대)와 2010년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기간 중에 생활비, 직장 회식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다투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해 왔다. 원고와 피고는 2021년경 협의이혼신청을 하였지만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피고는 또다시 원고를 심하게 폭행하여 원고는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다. 피고의 폭력을 피해 현재 원고는 자녀 집에 피신해 있는 상태이고,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춘천지방법원 2022. 4. 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12. 14.부터 2022. 4.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대출사기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511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0대)은 탈북민으로 학교 급식소에서 일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탈북민인 남성을 만나 가정을 꾸렸다. 당시 남성이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신청인 명의로 화물차를 구입하였는데, 얼마 후 남성이 북한에 있던 가족들을 남한으로 데려오면서 신청인은 남성과 함께 지내던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한편, 신청인은 북한에 있던 딸을 남한으로 데려오기 위해 브로커 비용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이 발생하였고,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는 브로커의 말에 급하게 당일대출을 받았다가 대출사기를 당하였다. 신청인은 딸을 남한으로 데려오지 못한 죄책감과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는 채무독촉전화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월 평균 55만 원 수급비를 받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독촉에서 벗어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5. 20.)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2년 10월 교육부

등지고실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9월 26일, 10월 24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12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사전예약 접수만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방법 : zoom을 통한 비대면 강의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9월 22일	의심, 피해망상, 그리고 조현병
10월 27일	마음이란 무엇인가?
11월 24일	부부대화법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휴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 상 : 서울가정법원 등 보호처분 대상자
- ▶ 진 행 :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정	강 의 제 목	강사
9월 7일	모든 정신적 어려움의 근원, 성격장애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0월 12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드는 분노조절장애	
11월 9일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기분장애	
12월 7일	일상을 무너뜨리는 중독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에 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캠프 」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3년 3월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일시 ▶
2023년 3월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SAMSUNG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률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